

### 한국 교수불자연합회 창립 25주년

하기 교수불자대회, 학술발표회  
7월 1~3일 200여 회원 통도사서

# “보현 행자로 거듭나 붓다정신 구현하자”

“다문화 인식 미비로 인한 사회통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불교의 평등과 구세의 사상을 널리 퍼기 위해 우리 교수들은 적극적인 실천행을 펼 것을 결의합니다.”

한국 불교의 지성인들이 사찰에 모여 한국불교 발전과 다문화 사회에서의 불교 역할을 모색했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최용춘)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양산 통도사에서 2박 3일동안 2013 하기 교수불자대회를 개최했다. 창립 25주년을 맞아 ‘불교사상과 다문화사회’를 주제로 열린 교수불자대회에는 200여 불자 교수들과 학자들이 참여했다.

하기 교수불자대회에는 200여 대종이 모여 불자교수들을 비롯한 불교지성인들

의 역할을 모색했다.

이날 최용춘 교불련 회장은 “다문화 사회에 교수들의 역할을 모색하는 것은 보현행자로 거듭나고자 하는 마음이 모였기 때문”이라며 “회원 상호간 서로 등불이 되고 울타리가 돼 보다 나은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시대적 소명을 이루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교수불자대회에서 모인 불자교수들은 마지막 날인 3일 결의문을 통해 △다문화 사회 정착을 위한 국가제도와 정책 제시 △다문화 대중 이해를 위한 불교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 경주 △불교 기본정신 구현을 다짐했다.

결의에 앞서 첫째날 통도사 율원 울주해남 스님의 기조강연과 둘째날 조계종



하기 교수불자대회에는 200여 불자교수들이 참여해 미래한국사회의 불교 기여 등을 모색했다.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의 특강 등이 진행됐다.

지안 스님은 특강에서 “이 시대 불교가 대중생활에 파고들기 위해서는 지성인들이 먼저 불교를 삶 속에 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과법을 끊임없이 살피는 것이 불교적 삶을 사는 것임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용춘 교불련 회장의 ‘불교사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고’ 등 10여명의 학자들이 다양한 학술발표를 진행했다. 또 통도사를 비롯한 불교문화탐방과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 등도 진행됐다. 교수불자대회에서는 학술대회와 함께 통도사 문화탐방, 자비명상 등도 진행됐다. 양산 통도사=노덕현 기자

### 학술발표 ‘불교사상과 다문화 사회’

## “불교적 공생·상생의 정체성 확립 나서자”

- 김방룡 “민족불교 정체성 혼동”
- 정천구 “불교 공생 기반 정책 마련”
- 박석봉 “사찰 건축도 다문화 반영”
- 최용춘 “기업 경영, 불교사상 접목”



통도사 설립전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각 발표를 경청하는 대종들

7월 2일 양산 통도사 설립전에서 열린 교수불자대회 학술발표에서는 다문화 시대를 맞아 불교계가 내부적으로도 교리 정리 및 정체성 확립 등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김방룡 충남대 교수는 “다문화사회에서 한국불교의 정체성” 발표에서 민족불교로서 정체성을 키워온 한국불교가 다문화사회에서 정체성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동북아시아 불교전통 속에 한국불교는 정체성을 형성해왔다”며 “동남아시아 남부불교와 티베트불교 문화가 불교계에 파고드는 현실에서 민족불교 전통을 계승하며 새로운 환경에 실천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천구 서울디지털대 석좌교수는 “다문화 사회 도래로 한국불교 또한 내부적으로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며 “불교계가 미래를 내다보고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교수는 “한국 다문화주의는 불교적 다문화주의의 이상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불교적 공생과 상생의 개념을 원칙으로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며 정책제안에도 불자교수들이 앞장서야 함을 강조했다.

박석봉 광주대 교수는 “다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본 도시 사찰 건축 연구” 발표에서 현대 불교건축물들이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반영하여 건립돼야 한다고 주

장했다. 박 교수는 “전통사찰의 경우 개인참신, 신도실 등 부속공간과, 예식장, 도서관, 청소년 공간 등이 매우 부족하다”며 “다문화 사회일 수록 이질적인 문화를 갖는 개인들이 많기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인공간 확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춘 교수불자연합회 회장은 “기업의 이익추구와 사회 공익 사이에서 불교가 마찰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일방 주장이 아닌 소통과 화합을 위한 불교패러다임이 사회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입 증 안 내

### ● 사단법인 불교 정중종

▷淨衆宗 : 깨끗한 무리의 중생들이 불교정도를 염원하는 종단

불법에 소중한 인연을 이어갈  
불교 정중종 입증을 발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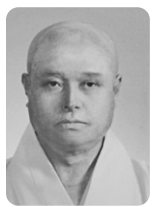
사단법인 불교 정중종 총무원

총무원장 진여 법만 합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140길 100 (중화동 274-63)  
전화 02)433-6591~2 /팩스 02)433-6508

###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분량)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살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 오전 7시 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무늬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핵,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든 어혈도 풀여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 사례” 페 식용유에 마가목액을 섞었다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유시품에 주의하세요.

상담문의

☎ 031-773-7838  
참나선원 대진스님

※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할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제조원·구입식품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남궁성균) · 식품제조업: 대구 북 제00619호

### 학술 · 문화재소식

## 대장경연구, 학술보고서 ‘초조대장경’ 펴낸다

2014년 초조대장경 복원사업 회향 기해 9월 출간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가 국내외 초조대장경과 관련된 사진과 자료를 집대성한 종합학술보고서 ‘초조대장경’을 출간한다. 한일공동으로 추진 중인 초조대장경 복원사업은 2014년 회향을 앞두고 있다.

종합학술보고서 ‘초조대장경’은 1권

일본 남선사 소장 초조대장경 도록, 2권 국내 각 소장기관별 초조대장경, 3권 초조대장경 학술(종합) 보고서의 세 권으로 구성됐다. 보고서는 오는 9월 출간 예정이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9월 출간에 앞서 사전예약을 받는다. 동참금은 90만원이다. (02)926-8144 노덕현 기자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간소화 돼

시·도지사가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없이 변경가능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이 간소화된다.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6월 28일 국가 지정문화재 주변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중 경미한 현상변경(現象變更) 행위에 대한 허가사무를 담당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내용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허가사무의 시·도 위임’ 건을 관보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2008년에 고시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허가사무

의 시·도 위임 사항을 시대 흐름에 맞춰 일부 개정된 것이다. 개정 내용은 고시에서 정한 범위 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위임 가능)가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또는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없이 자체적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고시문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노덕현 기자

## 제2회 경주 실�크로드 국제학술회의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이계영)는 7월 5일 경주 우양미술관에서 ‘제2회 경주 실�크로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기획한 ‘실�크로드학’의 일부로서, ‘북방 초원의 길’이라는 주제로 신라에 융합된 실�크로드관련 문물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개최됐다.

학술회의에는 주낙영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최양식 경주시장, 정수일 한국문명교류연구소장, 관련 교수 및 연구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학술회의는 압둘라미드 아나르바예브 우즈베키스탄 학술원 고고학연구소 부소장의 ‘실�크로드상의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신라)’과 요시미즈 츠네토 일본 노도지마 글라스공방회장의 ‘초원의 길을 통한 신라와 로마세계의 교류’ 기조강연에 이어, 윤상덕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



사, 이인숙 한성백제박물관 학예연구사, 이한상 대전대 교수, 강현숙 동국대 교수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안재호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신라의 진취적인 개방성을 실물자료를 통해 살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6일 주제발표, 종합토론과 함께 7일에는 석굴암과 불국사, 국립경주박물관 등 유적답사가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 ‘한국선학’ 제35호 게재 논문 모집

한국선학회(회장 이덕진)는 7월 31일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한국선학> 제35호에 게재될 논문을 모집한다. 논문은 반드시 워드프로체서로 작성해야 하며 분량은 원고지 100매 기준이다.

공동집필의 경우 제1집필자와 공동집필자의 구분을 명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학회 홈페이지(www.seonstudy.org)의 ‘논문투고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노덕현 기자

###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 관절염 · 통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 희 소 식

## 당뇨 · 고혈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 ~ 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 제 집 중!!!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스 생명 공학 ※대리점 모집중